

역사 속에 나타난 남성 화장의 특성

김주애* · 이연희

경상대학교 의류학전공* · 진주국제대학교 미용패션학부

The Characteristics of Men's Cosmetic through the History

Kim, Ju-Ae* · Lee, Youn-H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ept. of Fashion & Beauty Design, Jinju International University

(2004. 10. 4 접수)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the basic resources for men's cosmetic which shows in history. Because not only ancient chief but also modern French noble men made up in the area where succeeded the traditional national cosmetic, when it was seen through historic or world, the men's cosmetic was generated and was more luxurious and presence than women. But since the French revolution, men was limited the collection of fashion, also the luxurious cloth and cosmetic disappeared. It was 1960s that men's cosmetic based rock musicians reappeared. And then, rock musicians made up luxuriously. The early cosmetic of rock musicians began from the protest's meaning for old fashioned value and fixed society. But gradually, it was changed the style that valued appearance's beauty. In the past, movie star's hair style and cloth were the basic fashion, but now the sportsmen are recognized heroes and their cosmetic is prevailing. Today, the basic meaning of men's presence fashion is that men and women's each role and self expression is allowed and appearance's decoration showed from sex roles disappeared. Men is limited body's beautiful expression and collective range but they fluently express each self imagination through work, special hobby, female attire and drag queen. From various men's beautiful expression, we will know that human beings want a society which is recognizing different self expressions.

Key words : Men(남성), Cosmetic(화장), History(역사), Characteristics(특성)

I. 서 론

지금까지 화장에 대한 연구는 여성의 화장행동 특성이나 화장 문화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¹⁻³⁾. 그러나 최근 국·내외 성인 남녀들의 외모장식 경향들에 근거할 때, 화장은 이제 더 이상 여성들의 전유물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들이 여성들의 패션 특성을 차용하는 이러한 현상은 듀얼리즘

문화의 여러 가지 특성 중 하나인 남성의 여성화 경향으로서 전 세계적인 패션흐름이지만, 우리나라 남성들의 외모장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진다. 이는 2003년 미국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사실로서, LA Times는 '화장하는 남자'라는 기사에서, 한국 남성은 경쟁적 한국사회에서 파워를 나타내기 위해 치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평판이 아시아에서도 유명해 서울의 성형외과와 패션 부티크, 미용실, 화장품 업체 등이 고객들을 매혹시키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화장품

*Corresponding author: Kim, Ju-Ae

E-mail: jakim@gsnu.ac.kr

을 구입하는 남성들은 그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신에게 투자한다⁴⁾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남성들의 화장 관심도와 화장태도 등을 가늠하게 한다. 국내 남성화장인구의 증가현상은 각 화장품 브랜드들의 신상품 출시와 이에 따른 판촉활동을 통하여 잘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남성 화장 전반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며, 몇몇 선행연구 또한 남성 화장품 마케팅이나 광고에 국한되어 있다⁵⁾.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역사 속에 나타난 남성 화장의 현상을 통하여 남성화장의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남성 화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며, 그동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여성패션문화에 관한 연구 활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남성미용문화를 재조명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 및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고자 한다.

II. 남성화장의 특성

사람의 눈 가장자리에 검은 테를 두른 것처럼 까맣게 칠한 모습은 고대 이집트의 다양하고 풍부한 유물들의 얼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는 고대 수메르인들의 조각상에서도 보여진다. 화장 문화를 언급한 문헌들은 이러한 고대인들의 눈 화장 경향은 먼지제거와 태양의 강한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이것은 곧 화장의 신체 보호적 기능으로 간주한다. 또한 고대인들은 구멍이 있는 부분으로 악마가 체내로 들어온다고 믿었으며

로 눈 가장자리를 검게 칠하거나 입술을 빨갛게 칠하여 악마를 놀라게 하여 근접하지 못하게 한 점도 있었다⁶⁾. 고대 호족이나 수장의 화장은 신체를 채색함으로써 타인에게 위협적인 모습과 족장의 권위를 표현하여 현대 화장의 미적표현과는 기능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역사적으로 고대부터 이집트 왕이나(그림 1)⁷⁾, 호족과 수장 등의 매우 화려한 모습을 통해, 남성화장도 여성 못지않게 일찍부터 시작되었음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프랑스 부르봉왕조 남자 귀족의 흰 가루분, 가발, 머리분을 사용했던 화장한 모습(그림 2) 외에도 일본 평안(平安)시대의 남자귀족도 흰 분, 눈썹그리기, 검은 치아 등으로 화려하게 화장을 하였다(그림 3)⁸⁻⁹⁾. 또한 17세기의 네덜란드 남자들도 러브록(love lock) 형태로 머털을 내는 것이 유행하였다(그림 4)¹⁰⁾. 러브 록은 다른 머리보다도 길게 늘었던 털방울 모양으로, 컬이 되거나 리본을 매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고대부터 전통적인 민족화장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 등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화려한 화장과 복장으로로서, 남성 외모가 두드러졌다(그림 6)¹¹⁾. 누바(Nuba)인은 전통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많은 창조의 자유를 가졌다(그림 5)¹²⁾. 이디오피아의 수리(Suri)인 사이에서 수리 남성은 치열한 전쟁의 준비와 적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 스스로 칠하는 것을 좋아하였다(그림 7)¹³⁾.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남성의 화장한 모습과 호화로운 복장이 사라지면서 남성 패션의 선택 폭이 좁아졌다. 사회의 설계 기준이 노동하는 남성에 두어지고 여성은 노동하는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것이 근대형 성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남성은 노



<그림 1> 이집트 남자 눈화장
Hats, p.36

<그림 2> 부르봉왕조의 앙리 4세
화장모습, 2004. 6. 5
<http://instory.netien.com>

<그림 3> 평안시대의 남자 화장
ファツジョンを考える,
p.101

<그림 4> 크리스찬 4세 러브록
西洋のヘア・ファツ
ジョン, p.14

<p><그림 5> 아프리카 누바인 Return of the Tribal, p.17</p>	<p><그림 6> 파푸뉴기아인 전통적 화장 Decorated Skin, p.72</p>	<p><그림 7> 이디오피아 수리인 Return of the Tribal, p.54</p>

등을 정신적 물리적으로 방해받지 않기 위해, 꾸미는 것을 금지하고 금욕적인 패션을 취하였던 반면, 여성은 호화로운 화장과 의복으로 남편의 지위를 과시함으로써 패션은 여성에 한정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 록그룹이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기 시작하여 남성 화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 경우의 메이크업은 기성의 가치관이나 경직된 사회에 대한 저항의 의미였으나 점차 외관의 아름다움을 중시하게 되면서 비주얼계로 불려졌다. 비주얼 락(그림 8)은 눈에 보여주는, 보여주기 위한이라는 의미를 지닌 Visual과 Rock의 합성어이다. 비주얼 락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일본의 가부키를 연상시킬 정도로 분장에 가까운 짙고 사이코적인 화장과 현란하고 여성스러운 패션이다¹⁴⁾. 절규하는 듯한, 호느끼듯 늘어지는 독특한 창법도 비주얼 락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비주얼 락은 글램 락과 LA메탈, 시어터 락 등에서 영향을 받았다. Rolly¹⁵⁾, Izam¹⁶⁾, Gackt¹⁷⁾와 같이 남성 화장(그림 9, 10)에 의한 아름다운 표현법은 종래 여

성 표현법과 상통하였고, 1990년대 말엽에 비주얼계 밴드¹⁸⁾라는 단어가 유행하였다.

이후로는 스포츠선수의 남성 화장이 두드러졌다. 베컴선수의 커트나 브라질의 호나우도 선수의 깎고 남은 것을 살린 독특한 헤어스타일, 토타선수의 붉은 닭벼슬머리 등이 눈에 띄었다. 여태까지 스포츠 선수는 외관을 꾸미는 것이 금지되었고, 스포츠에만 몰입해야 했으나 최근에 이미지 트레이닝과 더불어 스포츠 선수의 외관은 일류선수로서의 자각과 자신감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이 변화되어 선수들은 외모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다(그림 11, 12, 13). 이전에는 영화배우의 머리형과 복장이 유행의 근원이었으나 현재는 스포츠선수의 모습이 유행의 근원이 되기도한다. 1998년의 나가노올림픽 시기의 스포츠 선수로 인해 젊은 남성 사이에서 눈썹 형을 정돈하는 것이 급속하게 보급되었다. 편의점에서 남성용 화장품 품이 충분히 갖추어지고, 그 중에서도 눈썹을 만드는 세트가 크게 유행되었다. 주로 눈썹 빗, 눈썹 브러쉬,

<p><그림 8> 비주얼 락, 2004. 8. 20 http://heartlove.com.ne.kr</p>	<p><그림 9> Rolly 화장 2004. 7. 6 http://www.color-by-technicolor.com/roly</p>	<p><그림 10> Izam 화장 2004. 9. 6 http://www.izamania.net</p>



눈썹 가위, 눈썹용 연필 등이 한 세트로 판매되었다. 당시 긴자(銀座)의 백화점에서는 남성 전용의 눈썹 커트 코너가 설치될 정도로 눈썹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남성 잡지에서 화장을 취급한 것이 증가되고, 뷰티 전문지도 등장하게 되어 남성 화장의 보편화를 꾀하였다. 남성의 미적 표현의 또 다른 방법으로서, 멋내기를 좋아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것에 둘러싸여져 있고 싶은 남성은 사회적으로 인식된 남성의 행동 범위에 강한 불만을 가지며, 사회적 일탈이나 취미활동을 시도하기도 한다. 즉 여장(女裝) 클럽에서 화장과 의장으로서 여장을 즐기거나 드래그 퀸의 표현을 하는 남성(그림 14)이 나타났다¹⁹⁾.

일부에서는 드래그 퀸²⁰⁾에 대해 제3의 성이나 21세기의 남성상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오히려 여자를 능가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드래그 퀸을 따라하는 여자까지 등장하였다. 드래그 퀸을 21세기 남성상의 하나로 표현될 정도로, 이전에 비해 21세기의 남성모습

의 변화에 대한 한 단면을 나타낸다. 이제 드래그 퀸이라는 용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졌는데, 이는 마우스를 끄는 의미로써 드레스를 끌면서 걷고 있는 여장을 한 게이의 이미지로부터 붙여진 총칭이다. 드래그 퀸은 게이가 만들어낸 게이의 문화로서 여장의 의미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여장은 여자가 되기 위한 것이지만 드래그 퀸은 여장을 해서 즐겁게 즐기는 것이 포인트다. 즉 여장을 빌려서 여자를 넘어선 여자도 아닌 남자도 아닌 것으로 됨으로서 그것을 즐기는 것이다. 드레스의 끝자락을 들어올린 지나치게 화려한 의상에 다 더욱 장식하여 자기 자신의 새로움을 창조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드래그 퀸은 80년대의 뉴욕의 클럽에서 생겨난 언더그라운드 문화이지만 일본에서도 멋내기 좋아하는 클럽 사람을 중심으로 선호되었다. 드래그 퀸은 여성의 의장에 대한 패티쉬한 욕망을 포함하고 남성이 여장하는 트랜스 페티시즘(trans fetishism)이며, 여성의 마음을 지니면서



남성으로 태어난 성전환과는 다르다. 이들은 세상의 정해진 스트레오 타입인 여성다운, 남성다움으로 일컬어지는 정해진 속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 낮에는 남자, 밤에는 요염한 여자로 매우 화려한 의장(衣裝)에 두꺼운 화장, 다양한 색상의 가발에 큰 가슴, 슈퍼 하이힐을 신고 이성을 유혹하면서 나이트클럽으로 향하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된다. 평상시 자신을 관찰하면서 아름답게 있는 것을 선호하며 노력하는 것이 21세기 새로운 남성상 드래그 퀸이다. 남성이 남성다움을 수염과 땀 냄새나는 찰스 부론손적인 남성상으로부터 이제는 청결하게 하여 아름다운 남성상이 새로운 남성상인 것으로 선호되는 경우에 그 연장선상에 드래그 퀸이 있어왔다.

드래그 퀸의 문화는 실제로 서구보다 일본 쪽이 더 진전되어 왔다. 서양에서는 게이나 여장에 대한 크리스토프교적인 억압이 강했으나, 이와는 달리 일본은 게이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다. 가부키는 연기하는 구성원이 남성이지만(그림 15) 여자 모습으로 드래그 퀸을 나타내고 있었다. 여자모습은 강호(江戶)시대의 젊은 무리의 패션과 라이프스타일로 해서 큰 인기를 얻었지만 막부의 금지령과 근대의 부국강병책에 의해 그 점차 사라지게 되어 일본에서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점차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아름답게 착장하는 남성상이 1980년대의 클럽문화로부터 21세기에 거쳐서 다시 부활되었다. 그 부활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미국에서 열린 드래그 퀸의 제전으로 위그스톡(wigstock)을 들 수 있다(그림 14). 위그스톡은 드래그 퀸 사람들이 모이는 뉴욕 최대 축제였다. 현재와는 달리 60년대에는 뉴욕이라도 여장은 체포 사유가 되었으나 70년대 말엽부터 퍼포먼스로서의 드래그 퀸이 힘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었으며, 뉴욕 클럽이 진원지로 되었다. 이 무렵 클럽에서는 립싱크에 주력하며, 드래그 퀸으로 유명한 사람이 밤마다 매우 이국적으로 쇼를 하였다. 즉, 마릴린 먼로의 노래 소리에 입을 맞추는 립싱크로서 개성까지 연습해 버리는 스타일이 인기를 누리게 됨으로서, 몇 명의 립싱크나 퍼포먼스가 드래그 퍼포먼스의 전형으로 되었다. 특히 이 위그스톡 제전에서는 퍼포먼스뿐만 아니고 청중도 화려한 가발로써 여자 모습으로 참가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III. 결 론

현재까지 전통적인 민족 화장이 전승된 지역에서

는 여성보다 남성이 오히려 화려한 화장행동을 하였다. 고대의 호족과 수장 외에 근세 프랑스의 남자 귀족도 화려한 화장을 하였으므로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남성화장은 일반적이며, 이들 역시 때로는 여성보다 더 화려하고 눈에 띄는 화장행동을 취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남성들은 패션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아짐으로써, 호화로운 복장과 더불어 화장 또한 사라져갔다. 남성 화장이 다시 두드러진 것은 1960년대부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던 하위문화의 영향이며, 그 중심에 화려한 메이크업의 락 뮤지션을 들 수 있다. 음악을 통한 이들의 반항적 움직임은 기성 가치관과 경직된 사회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외관의 아름다움을 증시하는 행동양식으로 변화되었다. 이전에는 영화배우의 머리형과 복장이 유행의 근원이었으나 현재는 스포츠선수가 영웅으로 인식되어지면서 그들에 취하는 남성화장이 유행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오늘날 의복, 화장, 헤어스타일 등에 이르기까지 남성들의 두드러진 패션행동의 이면에는 사회 속에서 남녀 본연의 자세에 대한 문제가 부상되고, 근대의 성 역할에 따른 외모장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자기표현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환경변화는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하여 비록 신체의 미적 표현이나 선택의 폭은 좁지만, 일탈이나 특수한 취미로서 여장이나 드래그 퀸을 통해 개인의 셀프이미지를 화장과 의상으로 풍부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또 다른 남성의 미적 표현을 통해 인간은 다채로운 자기표현을 인정하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1) 이주연(2003). 한국 여성의 메이크업 광고에 나타난 시각적 기호의 특성. 한국뷰티학회지, 1(1), pp. 143-151.
- 2) 신정희, 유태순(2004). 화장품 유통경로에 따른 소비자 쇼핑 성향, 정보원, 점포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5), pp. 13-23.
- 3) 한보현, 구자명(2003). 성인 여성의 화장색에 관한 분석 - 메이크업 제품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뷰티학회지, 1(1), pp. 27-47.
- 4) 화장하는 남자(2003). 한겨레신문. 10, 21, 10면. LA Times 기사.
- 5) 이일청, 최은미(2004). 남성의 화장행동과 화장품 구매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뷰티학회지, 2(2), pp. 34-47.
- 6) 유태순 외 2인 편(2004). 서양화장문화사. 서울: 동서교류, pp. 19-20.

- 7) Colin McDowell(1997). Hats. London: Thames and Hudson, p. 36.
- 8) 横田尚美 編(2003). ファッションを考える. 日本: 丸善株式会社, pp. 98-101.
- 9) <http://instory.netien.com>. 2004. 6. 5.
- 10) 石山 彰 監修(1988). 西洋のヘア・ファッション. ポーラ文化研究所. pp. 14-24.
- 11) Karl Groning(1996). Decorated Skin. New York: Thames & Hudson, pp. 72-73.
- 12) Rufus C. Camphausen(1997). Return of the Tribal. Rochester, Vermont: Park street pres, p. 16.
- 13) Rufus C. Camphausen(1997). '앞의 책', p. 54.
- 14) <http://heartlove.com.ne.kr>. 2004. 8. 20.
- 15) Rolly; 1982년 스칸치라는 밴드를 결성, 1990년 소니 레코드사로 데뷔, 96년 스칸치 해산 후 9월에 Rolly' Rockrolly」를 발표하면서 현재 로리 이름으로 솔로가수로 활동하면서 프로듀스로서도 정력적으로 활동.
- 16) <http://www.color-by-technicolor.com/rolly> 2004. 7. 6.
<http://www.izamania.net> 2004. 7. 6.
- 17) Gackt; 비주얼계의 밴드 Malice Mizer의 보컬리스트로 활약하며 어둡고 퇴폐적인 사운드로 히트함. 2000년부터 공격적이고 팝적인 사운드로 음악 활동을 하며 음악 영화 등 다방면에서 활동.
- 18) Shazna; 1993년 보컬리스트Shazna, 베이스, 기타리스트로 결성. 비주얼계열 밴드 중 가장 주목받음. 1997년 보컬리스트로서 정식가수 데뷔. 영화, 드라마에도 출연, 아티스트로서도 활약.
- 19) 横田尚美 編著(2003). '앞의 책', pp. 106-108.
- 20) <http://www.kaminoitazura.com/dragqueen.htm>. 2004. 8. 16.